

디지털카메라 등장 이후 인쇄 공정별 변화 회오리

최근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으로 프리프레스 공정을 비롯해 촬영까지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운용에 관해서는 룰이 확립돼 있지 않다. 이에 본지에서는 디지털카메라 운용의 과제와 디지털 촬영에 의한 워크플로우의 변화에 관해서 정리, 게재한다.

촬영 데이터 전달 기준 제각각

1990년대 초반 DTP의 보급으로 일의 방법 및 과정이 상당히 바뀌었던 것처럼 디지털 촬영도 단순히 촬영한 디지털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워크플로우의 합리화, 효율화, 그리고 경영의 개혁에까지도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에 의한 디지털 촬영에서는 품질보증, 또는 요구 품질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촬영을 맡은 카메라맨 측에서는 촬영 데이터를 Raw 데이터로 줄지, CMYK 데이터로 변환해 건네주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거래처 혹은 카메라맨, 제판부문 등과는 입장에 따라 모든 상황과 입장이 다른 것이 현실이지만, 약간의 기준은 필요하다.

디지털 촬영에 있어서 촬영 직후는 Raw 데이터이며, 기존의 현상에 맞는 것은 TIFF나 EPS 데이터로의 변환이고, 기존의 스캐너분야는 CMYK 변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은 화상 수정의 공정이다. 어떤 작업을 할 때 일을 의뢰하는 고객 혹은 카메라맨의 이미지가 제판·인쇄 회사까지 정확히 전해지지 않거나, 데이터가 똑바로 전달되지 않는 분단 상태가 생기는 것이 문제이다. 인쇄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카메라맨이 이미지를 어디까지 처리하는가는 제각각이며, 그것은 품질보증을 곤란하게 한다.



요구 품질 정확해야 책임·가격 등 명확해져

광고·출판 또는 상업사진 등과 개인적인 사진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도 다르고, 요구되는 품질도 다르다.

광고·출판, 상업사진 분야에서는 피사체를 충실히 재현하고 있는가보다는 소비자나 독자에게 어필하고 싶은 것이 똑바로 표현되고 있는가가 포인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출판 분야에서는 정보로서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또 대형 카탈로그, 통신판매 카탈로그 등의 상업인쇄는 촬영하는 양이 많고, 이러한 작업에서는 품질을 어떤 방향성에 맞춰 촬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추진 방법 등을 포함해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촬영의 내용에 따라 작업의 추진 방법이나 요구 품질이 크게 바뀌고, 그것들을 명확히 한 후에 일의 추진 방법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품질의 차이를 등한이 한 채 디지털 촬영의 데이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촬영 후에는 수정을 하지 않는 편이 합리적이며, 카메라맨이 찍은 것이 그대로 제판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무엇을 우선하는가에 따라 품질의 판단이 달라지고, 워크플로우도 변화되고 있다. 카메라맨이 인쇄됐을 때에 어떤가를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판단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요구 품질이 명확해지면 책임영역이 명확해지고, 책임영역이 명확해지면 공정이 명확해진다. 그래서 공정이 명확해지면 작업부하가 명확해지고, 작업부하가 명확해지면 가격도 명확해진다. 그러나 최초의 요구 품질이 불명확한 채 일이 진행된다면, 어디에서 품질에 책임을 지고, 어디에서 비용을 어느 만큼 부담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지 않게 되어 버린다.

워크플로우를 확실히 설계한다는 것은 품질설계나 공정설계이며, 예산의 설계이다.



목적별 워크플로우 설계 중요

워크플로우의 설계에서는 촬영한 데이터를 설계하는 '통합형 워크플로우'와 촬영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번역형 워크플로우'라는 2가지의 대응방법이 요구된다.

'통합형 워크플로우'에서는 제판담당자가 카메라맨이나 고객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최종적인 요구품질이 이렇게 되고, 촬영은 이렇게'라는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워크플로우라고 해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일의 추진 방법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인 타깃을 카메라맨의 이미지 우선, 말하자면 원고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최종적인 목표가 인쇄물이기 때문에, 먼저 촬영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제판 측에서 거래처가 바라는 표현이나 요구 품질에 맞추든지, 결국 원고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인쇄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워크플로우는 크게 달라진다.



그것에 대해 '번역형 워크플로우'는 최종 요구품질로 변환하기 위한 구조나 틀, 워크플로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입고된 촬영데이터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거래처의 요구품질에 맞는 인쇄물을 얻을 수 있도록 제판하는가라는 것이다. 이때 몇 번이나 교정을 다시 하지 않으면 목적하는 품질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틀을 이용해서라도 효율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워크플로우 설계는 상기의 2가지이지만, 하나 더 작품 만들기의 데이터 처리가 있다. 이것은 사진집 등의 크리에이티브한 일에 있어서, 촬영단계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디테일을 카메라맨과 제판담당자가 하나가 되어 작품을 완성시키는 '협조형 워크플로우'가 있다. 이렇게 각각의 요구 품질이 다르고, 일의 추진 방법, 역할 분담이 다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개개의 일에 따라서 워크플로우는 달라진다. 지금부터 인쇄회사에는 하나 하나의 일을 확실히 코디네이트해, 거래처에 제안 또는 컨설팅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회사야말로 가지고 있는 경영자원에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바뀌고 있지만, 자신들의 회사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살려, 각자의 워크플로우 모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적 판단 가능한 인재 필요

디지털 촬영을 포함한 풀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데 가장 요구되고 있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거래처, 카메라맨, 디자이너 등 담당자 가운데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무엇을 만들고 싶은 것인지 목표 설정과 공유화가 되지 않으면 몇 번이고 다시 고치더라도 만족하기는 어렵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표현, 공정, 운용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다음으로는 유연한 대응으로, 일마다 모든 워크플로우가 다르다고 전제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결론을 내기 전에 여러 가지 수단을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일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일의 추진 방법을 개발할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 표준적인 워크플로우의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회사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경영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몇 개의 모델을 만들고 나서 제안해 항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포토디렉션 확장이 필수이다. 즉 사진의 목적이나 품질, 제판공정을 잘 이해하고 또한 기술이나 사내의 경영자원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윤재호 부장)

